

3주차

과거시험 2

이 경 숙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과거시험의 답안

- 임숙영의 답안
- 합격을 취소하라

02. 학교, 관광, 지식 네트워크

- 학교와 시험
- 왕을 보고 명소를 보고
- 지식 네트워크

03. 새로운 시도와 비판

- 현량과를 실시하다
- 윤기, 최상의 방책

04. 과거제도 비판과 개혁

- 다산 정약용의 비판과 개혁
- 학교의 강화를 주장하다

05. 과거시험 폐지와 논의

- 과거제에 보내는 질문들
- 기형적 조속? 세계지식의 변화

2차시

학교, 관광, 지식 네트워크

학습목차

학습목표

-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과거 시험을 살펴본다.
- 과거시험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학교와 시험
- 왕을 보고 명소를 보고
- 지식 네트워크

학교와 시험

과거시험에 대한 비판

- ‘학교가 허술해지고 있다’
- ‘과거시험 대비용 공부만 하고 있다’

성균관과 4부 학당

- 성균관: 조선시대 최고 교육 기관
- 4부 학당: 동, 서, 남, 중앙 → 4개의 학부 운영



성균관 대성전

율곡, <학교모범>

배우는 자가 학궁에 있을 때는 모든 행동거지를 일체 학령에 따라야 한다. 독서도 하고 제술도 하고 식후에는 잠시 거닐어 정신을 맑게 하고 돌아와서 학업을 익히되 저녁 먹은 뒤에도 역시 그렇게 한다. 여럿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강론으로써 서로의 견식을 늘이고 위엄 있는 몸가짐으로 정제하고 엄숙해야 한다. 만일 선생이 계실 때는 읊한 뒤 질문하며 더 배우기를 요청하는데, 마음을 비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늘 잊지 말아야 하며 무익한 글을 질문하여 심력을 헛되어 쓰게 하여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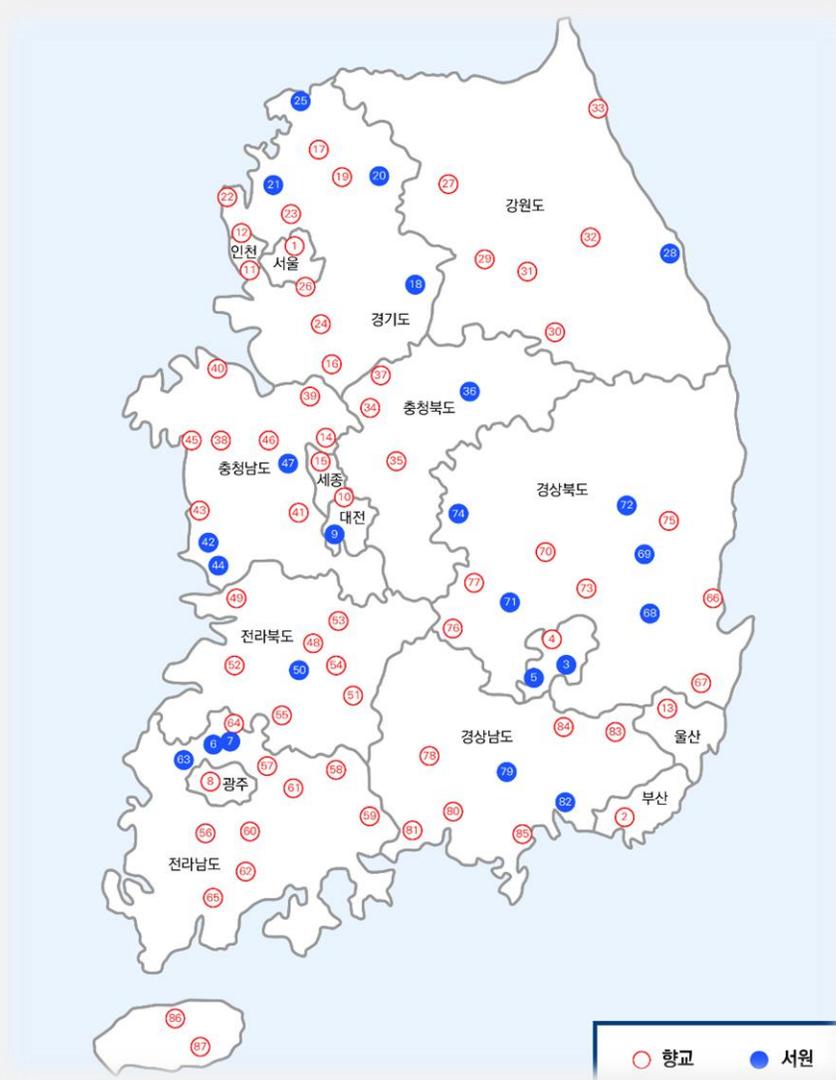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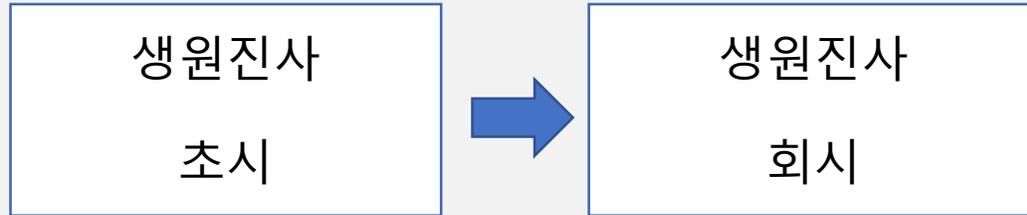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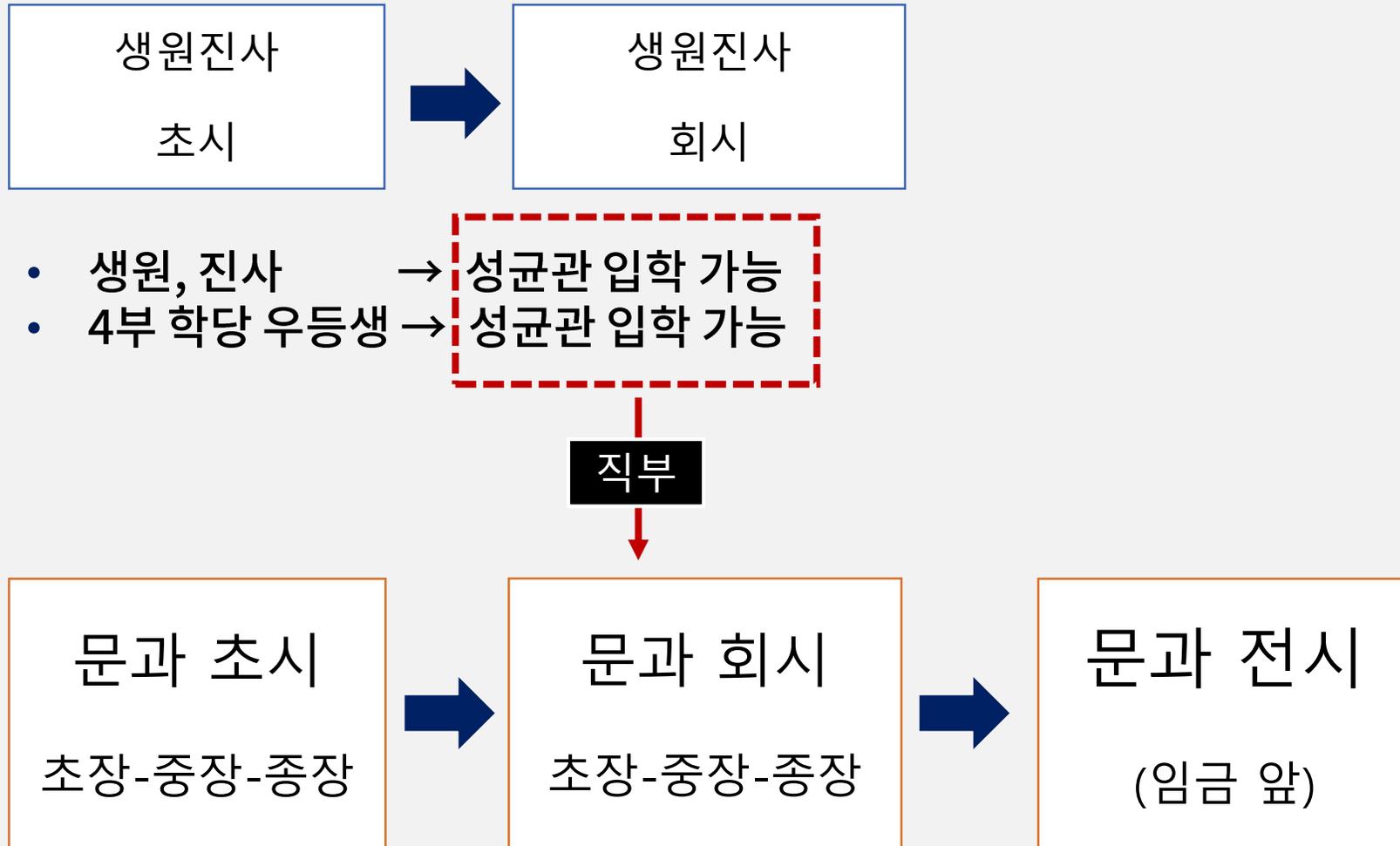


도산서원





- 생원, 진사 → 성균관 입학 가능



성균관의 원점제

- 아침, 저녁 식당에서 자신의 이름을 서명
→ 출석부에 날인

성균관 내 시험

- 매일 치는 시험(日考), 열흘마다 치는 시험(旬考)
- 매달 치는 시험(月考), 절일에 치는 시험,
- 일 년에 2번, 일 년에 1번 치는 시험(年考=春秋都會)

윤기의 비판

- 승보시: 4부 학당 학생들이 치는 시험
- 사학합제: 성균관 학생들이 치는 시험
→ 이들을 ‘직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선후기 성균관의 상황

왕을 보고 명소를 보고

‘초장에 떨어졌다’

- 시험에서 바로 떨어졌을 때 사용

(문과시험 3단계: 초장 - 중장- 종장)

‘파장이다’

- ‘완전히 끝나버리다’

(과거 시험장이 끝나는 경우에 사용)

‘압권이다’

- ‘내려 누른다’

(1등 답안지가 맨 위에 올려져 있음)

‘관광(觀光)’

- ‘빛을 보다’ = ‘왕을 보다’
- ‘과거시험에서 합격을 했다’
→ 점차 확대되어 사용됨

조선시대 대표 관광지

- 금강산
- 문경새재

손성악(1741~1813)의 관광

- 1763년 가을(23세) 동당시(문과)를 위해 예안에 묵으면서 청량산 유람
- 1773년 가을(33세), 거창으로 과거시험, 가야산 유람

이정제 <유내연산기> 1

- 일종의 사탄(邪誕)의 학문이 서방(西方)으로부터 번성하여 도성(都城) 주위에 유입되었으나 유독 영남의 유림(儒林)들은 초연히 하면서 이에 물들지 않았다. 이에 정조께서...
- 경상도(慶尙道)의 유학자들로 하여금 모두 도산서원(陶山書院)에 나아가 시를 짓게 하셨다. 그리하여 나도 또한 형(兄)을 따라 가서 이곳에 이르게 되었다.

이정제 <유내연산기> 2

- 1792년(정조 16) 3월 봄... 과거를 마치고
- 돌아올 때에는 북쪽 길에서부터 오다가 청하(淸河) 보경사(寶鏡寺)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절은 곧 동해안의 명승지이다. ... 이번의 여행에 좋은 벗들과 소매를 나란히 하고 지척의 거리에 있는 명승지를 다니며 이전의 바람을 보상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 함께 가기를 바라고 따르는 사람은 대개 17~8명이다.

박득녕, 남한산성을 가다

- 1839년 4월 21일, 박득녕은 또 한 번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 ... 4월 12일, 과거시험을 위해 상경하던 길에 남한산성 구경... 성 안의 건물들이 달팽이 집처럼 초라해... 좌우의 산천을 내려다 보니 소나무만 푸르르고, 쓸쓸한 기운... 여기서 청나라 군에 둘러싸인 인조 임금의 어떤 생각을 했을지 알 수 없으나 ... 쓸쓸하고 외로운 기분

박득녕, 남한산성을 가다

- 1839년 4월 21일, 박득녕은 또 한 번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 ... 4월 12일, 과거시험을 위해 상경하던 길에 남한산성 구경... 성 안의 건물들이 달팽이 집처럼 초라해... 좌우의 산천을 내려다 보니 소나무만 푸르르고, 쓸쓸한 기운... 여기서 청나라 군에 둘러싸인 인조 임금의 어떤 생각을 했을지 알 수 없으나 ... 쓸쓸하고 외로운 기분

시험관의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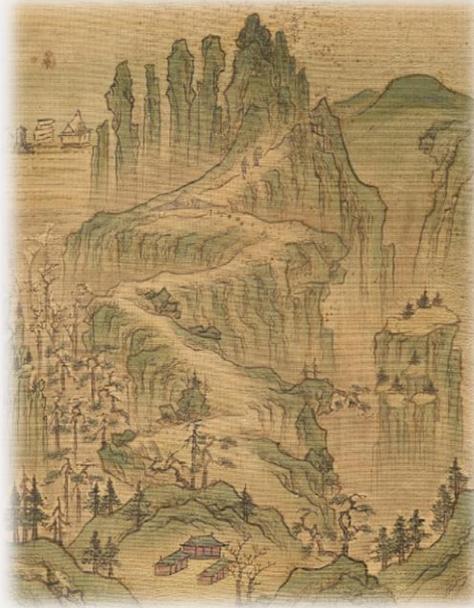
1664(현종 5) 함경도 길주 문무과



북새선은

시험관의 관광

김수항(1629~1689), 길주지방 과거 시험관으로 파견



북관수창록

영남인의 과거시험 길

- 추풍령은 통과

추풍(秋風): ‘바람에 떨어진다’

- 문경새재를 넘어 한양으로 감

‘문’경새재: ‘문(文)’ → 시험 합격을 의미

지식 네트워크

박득녕, 세상 소식을 듣다

- 1839년 9월 17일(과거시험일은 27일)
- 9월 18일 서학 사건을 들음

서원으로 사람들이 모이다

[출처01] 문화재청

<https://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6307895&ccbaKdcd=12&ccbaAsno=01410000&ccbaCtcd=11>

[출처02] 왕세자의 성균관입학도,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 2009, 국립중앙박물관

[출처03]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6797040&ccbaKdcd=13&ccbaAsno=01700000&ccbaCtcd=37>

[출처04]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출처05]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1324>

[출처06]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73464>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준희·정다영

교안

정다영

영상

김록현